



3년

전북자치도, 뉴욕·뉴저지 공공외교 총력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음 5월 24일) 제376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체육박물관 건립 추진 수년째 답보

전북체육회 수장고 보관  
기증유물 4000여점 방치  
“행정 뒷받침이 따라줘야”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부지 확보 지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로  
박물관 건립 필요성 커져

전북 체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육박물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면서, 지역 체육계와 도민들 사이에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수년 전부터 체육박물관 건립을 준비하며 올림픽 메달, 국가대표 유니폼, 각종 경기용품, 트로피, 역사적 사진 등 총 4천여 점에 달하는 체육 관련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왔다.

이들 기증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전북 체육의 생생한 역사이자, 지역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많은 체육인들이 자신이 아끼는 기념품들을 기꺼이 무상으로 기증하며 박물관 건립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표현했다. 하지만 현재 이 귀중한 유물들은 전북체육회 건물 2층의 좁은 수장고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어 전시나 관리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유물 훼손에 대한 우려는 물론, 보관 공간의 한계에도 이미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종삼 전북체육회 회장은 “체육



전북 체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육박물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면서, 지역 체육계와 도민들 사이에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수장고에 보관된 기증 유물들이다.

인들은 앞장서서 소중한 유물을 기증했지만, 정작 행정의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헌신과 따스한 지원 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체육인들의 선의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전북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적

극 추진하고 있어 체육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스포츠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체육의 역사와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체육박물관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공간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는 도전 정신과 자부심을 길러주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에게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한 관계자는 “전국체전과 도민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경기 등을 통해 수많은 체육 인재를 배출해 온 전북의 찬란한 체육사를 정리하고 후세에 전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며 “전북 체육박물관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도민과 체육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전북 체육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육박물관 건립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국유건물, 자립공간으로

도,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 본격 추진  
전주·익산·임실 등 4곳 선정... 순차 개소 예정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장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과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물 판매점, 2층에는 디지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운팜스 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과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페사업단’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캠코가 자산 제공과 함께 초기 정착을 위한 운영비를 개소당 1,000만 원 지원하고, 전북자치도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자활기관은 사업 운영을 각각 맡는 구조로 추진된다.

리모델링 이후에는 기존 자활사업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구성해, 각 사업장별로 특화된 자활모델로 운영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전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공동체 회복의 공간으로 바꾸는 매우 상징적인 전환”이라며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물리적 공간 제공에 전북형 자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전주시·군산시, 전주대·호원대 글로컬대학 본지정 ‘한 뜻’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대·호원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에 발 벗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대·호원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군·대학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전주대·호원대과 글로컬 추진방향과 관련된 도청 실국, 전주

협력회의 열고 실행계획서 집필·산학협력 추진 등 논의 시·군산시, 전주대와 호원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컬대학 추진방향과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본지정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의 집필 및 지자체 지원 계획 수립 △전북도 주요 정책과 대학

협력방향 간 연계 △스카가옌터·CJ ENM 등과의 산학협력 추진 △전주·군산 등 시군과의 재정지원 및 연계사업 발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주대·호원대가 추진 중인 K-FOOD, K-Contents, K-Wellness 분야 중심의 ‘K-Life

STARdium’ 캠퍼스는 지역의 문화산업과 관광, 식품, 뷰티산업과 맞닿아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도는 실국 간 긴밀한 협업과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전북형 글로컬대학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6월~8월 동안 본지정 평가 대응을 위한 실행계획서 작성, 산학연 협약 체결, 시군과의 예산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향후 대면평가 및 본지정 결과에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제1회 전북교육발전대상 시상식’ 20일 개최

수업혁신·혁신경영·교육헌신·교육협력 교육감 표창  
전북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전북교육홍보대사 위촉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제1회 전북교육발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처음 열리는 전북교육발전대상은 전북교육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교직원과 도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교육적 표상으로 삼고,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수업혁신, 혁신경영, 교육헌신, 교육협력 등 4개 분야에서 최대 2명까지 선발,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주요 자격요건은 △수업 연구 및 혁신에 객관적이고 현저한 공을 인정받

은 자 △학교·기관 경영에 분명한 실적과 성과를 이룬 자 △교육봉사·기부 활동 등으로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교육투자와 교육활동 지원 실적이 두드러진 자(기관) 등이다. 수상자들에게는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전북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 전북교육홍보대사 위촉과 교직원에게는 20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